



변호사 피살사건 공소시효 못 살리나...

경찰, 이 변호사 살인교사 주장 인물 출입국 기록 분석 해외 도피시 공소시효 정지되지만 체류기간 6년 안돼

장기 미제로 남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공소시효를 되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남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미제사건 전담팀은 최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김모(54)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인 전 유탁과 행동대원으로 지난달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당시 두목이었던 백모씨(2008년 사망)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씨는 동남아 쪽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이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도 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6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신에는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찔른 흔적이 남아 있어 청부살인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 2014년 11월4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이 살인 교사를 주장하는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이

유는 6년 전 만료한 공소시효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을 땐 해외 도피 기간 만큼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범인의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1주일씩 외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의 해외 체류기간은 모두 합쳐도 공소시효를 되살릴 요건이 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되살리려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씨의 해외 체류기간이 적어도 6년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김씨가 정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

피한 것인지, 사업 또는 여행을 위해 해외로 간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대로 김씨가 살인을 교사하고, 동갑내기인 손씨가 직접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이 둘은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가 된다"며 "따라서 살인 교사범은 직접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오간 것이라고 해도 체류기간이 6년이 안 돼 시효 정지로 인한 (강제 수사 착수 등)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가 두목의 지시를 받았던 1999년 10월에는 두목 백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또 직접 범행을 했다면 손씨가 1998년 8월20일 강도사건으로 입건된 점을 미뤄볼 때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가 채용공항 지속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지 옮기라고? 사실상 해고 통보”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국제공항 운영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장에선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이라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가 수년째 제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는 2일 낮 12시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설립 이전 약속과 달리 ‘전 공항 순환근무’가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다”며 “채용 공항 지속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년간 삶터·일터가 모두 제주인 노동자들에게 대구·김해 등으로 전직을 가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라며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제주공항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한국공항공사·자회사에 촉구했다.

김다혜기자

건설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건설노동자 10대 요구사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건설노조)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건설노동자 고용안전 10대 요구사항 수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은 국회의 각

종 법안·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며 “국민 다수가 보내준 지지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혜기자

집유기간 음주운전 30대 실행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018년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누범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민기자



여름 바다 찾은 아이들 2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어린이들이 바다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에 자리 옮기는 무더위쉼터

서귀포시, 폭염 대응 시동 경로당 쉼터 개장 연기에 마을 정자 등 81곳 쉼터로

서귀포지역 마을 정자 등에 야외 무더위쉼터가 개설·운영된다.

서귀포시는 2일 각 국·소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태엽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른 각 분야별 대응 준비 상황 및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수방자재·응급복구 장비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재해구호품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올 여름 유례없는 폭

염이 예보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81곳에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외 무더위쉼터는 마을 정자·노거수·공원 등을 활용해 조성된다. 경로당 등에 마련된 기존 무더위쉼터는 당분간 개장이 연기된다. 야외 무더위쉼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아이스박스·일음·생수 등 필요한 물품이 지원된다. 더불어 그늘막 추가 확충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에는 일음·생수·쿨스카프 등 폭염피해 저감 물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해수욕장·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지역의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 지정 관광지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태풍 발생시 철저한 출입 통제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로 했다.

김태엽 시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현영총기자

해경, 신형 연안구조정 배치

제주시 관내 연안 해역 안전과 해상치안을 책임질 신형 구조정이 제주파출소에 배치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파출소에 배치된 S-25정(18t급)은 승선원 8명이 탑승 가능하며 길이 14.4m, 폭 4.3m이다. 750마력×2디젤엔진에 최대속력은 35노트(시속 약 63km) 가량이다. 신형 연안구조정은 날개깃이 회전하면서 물을 밀어내는 원리로 추진력을 얻는 ‘스크루’ 형식이 아니라 물을 뿜는 ‘워터 제트’ 방식이다. 어망이 많은 있는 제주 연안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

제주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시에도 해양 사고 현장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혜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 **제라온** - 싹틔움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싹틔움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싹틔움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1,3년생
감 평	1,3,4년생
성하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황 금 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 자 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